

불황에 엔저 ... 광주 수출 中企 '이중고'

원·엔환율 900원대 붕괴 ... 전자부품·광산업 채산성 악화

중국업체에 거래선 빼앗길라 마진없는 수출 '올머 겨자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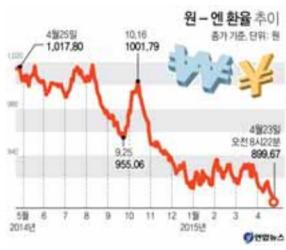
#가정용 모터를 일본에 수출하는 광주의 A사는 최근 일본 측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도록'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심각히 고민중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화 환율 절하로 올해 초 5% 가량 납품단가를 인상시켰지만 계속되는 하락세에 원가를 맞추 수 없어 추가 인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원·엔 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A사는 일본 수출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거래선 유지를 위해 마진 없는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의 대(對)일본 수출 중소기업들이 원·엔 환율하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3일 오후 5시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903.63원을 기록했다. 개장 전 원·엔 환율은 7년2개월 만에 900원선 밑으로 내려갔다. 오전 8시22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오전 6시 뉴욕시장 대비 0.66원 내린 100엔당 899.67원이었다. 원·엔 환율이 900원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 2월28일 889.23원(중가 기준) 이후 처음이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까지 붕괴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가뜰이나 어려움에 시달리던 지역 대기업 수출 중기들은 이중고에 맞닥뜨리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100엔당 1014원대를 뚫고 내려와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틈을 노린 중국 업체들이 일본 거래선마저 낮은 단가로 뚫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광주의 B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일본 고객사로부터 단가를 올려받지 못해 마진 없는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틈을 중국업체가 차고 들어와



아예 거래선을 뺏기는 업체도 많아 올머 겨자먹기로 수출을 유지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수출 기업 453개(대기업 126곳, 중·중견기업 327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최근 원·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액 감소가 중소기업(5.6%↓)이 대기업(1.8%↓)보다 훨씬 심각했다. 여기에 최근 원화 절상폭이 예상

보다 가파르다. 엔저 현상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부품이나 광산업위주의 광주지역 수출업체들이 채산성 악화 및 거래선 단절에 시달리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역보험협회와 중소기업청 등은 환변동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환율 예측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업체들에 보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단기간에 방어책을 세우긴 쉽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과는 달리 수출 초기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등은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비롯한 정부지원을 수출 초기기업 등에는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73.41 (+29.52)
-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4)
- ▼ 코스닥 692.48 (-10.86)
- ▲ 환율 (USD) 1082.20원 (+2.60)

조환익 한전 사장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15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품질경영학회는 이날 조 사장이 품질경영시스템 정착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전력공급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글로벌 품질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급년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의 품질경영방침에 따라 한전은 2014년부터 '사내 제안제도'와 '품질명장제도' 등을 최초로 도입했고, 정부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도 전국품질보급대회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최다인 21개 품질보급조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 사장은 "한전이 빛가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시점에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전력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전시켜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1988년부터 매년 품질경영 활동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한 경영인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인구총조사 방식 확 바꾼다 전수조사에 행정자료 활용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이 올해부터 많이 달라진다.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했던 전수조사에 행정자료가 활용되고 조사 결과도 매년 얻을 수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백만기)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에 12개 기관(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등)의 주민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21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조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현장 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현장조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등록센서스'를 도입, 기관이 관리 중인 공공데이터를 서로 연계·활용해 진행하는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탈리아 구두 제작 시연. 이탈리아 슈즈 공방 장인 플로리아노 프리아텔리(Floriano Pratelli)가 23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바토레 페라가모' 구두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쌍용자동차, 송하동에 광주시승센터 개소

쌍용자동차가 지난 22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광주정비사업소에 광주시승센터를 개소했다.

광주시승센터는 최근 소형 SU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티볼리'와 '코란도C', 미니밴 유일의 4륜 구동 차량인 '코란도 투리스모', 다목적 픽업트럭 '코란도스포츠' 등을 갖췄다. 또 '렉스턴'과 '체어맨W' 등 시승차량으로 운영돼 고객이 전 차종을 직접 타 볼 수 있다.

이태범 쌍용자동차 호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쌍용차의 우수한 품질을 현장에서 바로 경험하고, 경쟁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승센터를 광주에 개소했



지난 22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쌍용차 광주정비사업소에서 이태범 쌍용차 호남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쌍용차 광주시승센터' 개소식을 열고 있다. <쌍용차 제공>

다"며 "광주지역 쌍용차의 시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더 큰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www.smoto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8주 연속 1위

4월 셋째주 0.59% 상승

아파트값 작년보다 5% ↑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월 이후 8주 연속 전국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보다 5% 가까이 올랐다. 전셋값 역시 매매가격과

근접하게 상승했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20일 기준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59% 상승했다. 광주의 아파트값은 3월 첫주 전주보다 0.2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3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 0.5%가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

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이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광주의 상승률은 하락폭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4.87%나 상승해 제주(3.92%), 대구(3.17%)를 큰 차이로 눌렀다. 전국평균(1.97%)보다 2.9%포인트나 더 높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4월20일 기준 전

주보다 0.56% 오르며 지난해 말과 비교, 4.63% 상승했다. 광주의 전셋값은 3월30일 전주보다 0.49%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관계자는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직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로 유입되면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초반 남구에 집중되던 이전 수요가 수완지구와 첨단, 신성지구까지 확대되면서 광주 전체에 가격 상승 영향을 주고있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은 광주전남본부 '지역중기 금융지원제도' 책자 발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명중)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이 책자에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담았다.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중소



기업 대출종류 등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책자의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http://www.bok.or.kr/gwangju)에서도 볼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선재광 원장의 암, 고혈압, 당뇨 잡는 '체온 1도'에 주목하라!

MBN <엄지의 제왕> '체온 1도의 기적' 편 방영 화제작!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할 책! 현대판 동의보감 <천기누설> 10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신재광·시원 | 정가 14,000원

천기누설 10권
MBN 천기누설 개작팀 지음 | 서재집·김달래·이광연 감수 | 정가 17,000원

인테파크 서점(교보문고, 에스24, 인테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4-2659